

파견기간	25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2-11583
파견국가	독일		소 속	재료공학부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성 명	장주영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나에게 있어서 교환학생 지원의 동기이자 목적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유럽 여행이다. 방학이면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였다. 교환학생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었던 아시아 국가들을 위주로 여행을 다녔다. 지금이 아니면 유럽이라는 매우 큰 대륙을 자유로이 여행할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했다. 둘째는 영어 회화 경험이다. 해외에서 생활하며 실질적인 영어 회화 경험을 쌓고 싶었다. 이전에 한국에서 영어 회화 공부에 도전한 적이 있었으나 지속하지 못했다. 그 원인에는 나의 회화 실력을 직시하는 시간의 부재가 크다고 본다. 해외에서 직접 생활해보며 나의 영어 회화 실력의 현실을 강하게 직시하여 이후의 영어 회화 공부의 동력을 얻고 싶었다. 셋째는 해외 살이 경험이다. 반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해외에서 혼자 살아보며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점들을 마주해야 하는지 경험하고자 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선정 기준은 세 가지였다. 1) 유럽 여행을 다니기에 편리한가. 2) 영어만으로 학교 생활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가능한가. 3) 물가가 저렴한가. 나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에서도 베를린을 택한 이유는 사실 명확하진 않았다. 희망 후보교를 제출할 즈음 독일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으나, 글로써 얻어지는 정보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중 독일 내에서도 베를린은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는 것이 당시의 나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져 베를린 공대를 1순위로 지원하였었다.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직접 다니며 각 도시들의 분위기와 특징들을 보다 명확히 알게된 지금의 나는 다시 교환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내에서 도시를 다시 선택한다면 뮌헨을 1순위로 지원할 듯 싶다.

2. 파견지역 특징

물론 베를린이 교환학생으로써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큰 단점을 가졌던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장점이 매우 많았다. 우선 베를린에는 매우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다. 한국인도 많은 편이고 아시아 인들도 많다. 따라서 차별을 받거나 위축되는 상황이 매우 적을 것이다. **물가**도 유럽에서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북유럽, 서유럽과 비교하면 당연히 더 저렴하고 독일 내의 다른 대도시중에서도 저렴한 편이다.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 물론 외식 물가는 논외이다. 외식물가는 상대적으로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저렴할 편일지언정 절대적으로 저렴하지는 않다. 또한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며 큰 도시인만큼 베를린에서 **기차, 비행기**를 이용하여 타 유럽국으로 여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독일 내의 타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뮌헨과 프랑크푸르트가 공항 노선은 더 많고 다양하다. 또한 베를린은 독일의 북동부에 위치하는데, 가까운 리에 여행할만한 곳

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육로로 여행을 다닐 시 동유럽 지역이 아니라면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독일 내의 관광 도시들과도 다소 동떨어져있는 편이다. 다음으로 베를린은 독일 내에서도, 유럽 안에서도 매우 독특한 도시이다.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상상속의 유럽 도시 느낌보다는 한국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기도 했다. 길거리에는 그래피티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자유롭다. 노숙자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깨끗한 도시는 아니다. 유럽 안에서도 유명한 클럽들이 많기도 하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도시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매력에 있는 도시이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2월 출국을 계획했던 나는 11월 말에 주한독일대사관 비자 발급 예약을 신청했고, 12월 초에 방문했다. 이전의 후기들을 읽었을 때 비자 발급 예약을 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예약 시스템이 최근에 변경되어서인지 내가 꽤나 미리 예약을 해서인지 예약이 어렵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다만 날짜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해주는 날짜의 시간에 방문해야 한다. 지정해주는 날짜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하고 다시 날짜를 받아야 한다. 대사관에 방문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비자발급비(현금), 비자신청서, 영문재학증명서, 성적표 등 매우 많은데, 대사관 홈페이지와 최근의 블로그 후기들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챙겨가야 한다. 준비물을 덜 챙겨가서 대사관 예약을 다시 잡고 다시 방문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날짜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꼭 한번에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가야 한다. 그렇게 신청을 무사히 마치고 여권을 맡긴 후, 재방문 일자에 다시 방문하여 비자가 붙은 여권을 받아오면 된다.

2. 안멜등 태어민

독일에 도착하고 기숙사에 입사하면 Anmeldung이라는 것을 해야한다. 독일에 이제부터 살겠다고 독일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 하려면 역시 또 미리 예약, 즉 태어민을 잡아야한다. 예약을 잡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으니 기숙사 입사 시기가 결정되었다면 개강하는 달로 미리 예약을 잡아놓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물론 독일에 도착해서 전날이나 당일에 뜨는 취소 여석들을 잡아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3. 기숙사

교환교가 결정된 후부터 서울대 교환 담당자님에게 오는 메일은 물론 교환교에서 오는 메일도 빠짐없이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베를린에는 여러 대학들이 있고 이러한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가 베를린 내에 여럿 존재한다. 베를린 공대 교환 담당자님께서 그중 어떤 기숙사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시고 우선순위를 제출하게 된다. 이전까지 베를린 공대의 거의 모든 후기에는 지그문트 기숙사와 관련한 내용뿐이었기에 지그문트를 1순위로 제출했으나, 배정된 기숙사는 Coppi였다. 이 역시 최근에 지그문트 리모델링 등의 상황들로 인해 많은 교환학생들이 Coppi로 배정되는 듯 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교환 친구들은 Hans und Hilde Coppi, 지그문트, Hubertusalle 셋 중 하나의 기숙사에 거주했다. 내가 살았던 Coppi는 3인3실로 2명의 플랫메이트들과 화장실, 부엌을 공유하는 형태였다. 상상하는 ‘교환학생스러운’ 기숙사는 아니다. 실제로 현지 학사, 석사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는 듯했으며, 나의 두 플랫메이트는 다른 학교의 석사생들이었다. 같은 건물이더라도 방별로, 층별로 방의 크기와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달랐다. 이는 랜덤으로 배정된다. 나의 방은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작은 크기의 방이었기에 가격이 달에 307유로로 저렴했다. 그러나 방의 크기가 혼자 쓰기에 절대적으로 전혀 작지 않았고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더럽거나 오래된

방은 전혀 아니었기에 매우 만족하면서 생활했다. 그러나 베를린 중심가, 베를린 공대와는 지하철로 30분~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그러나 공항과는 다른 두 기숙사에 비하여 훨씬 가깝다. 본인이 수업을 얼마나 들을 것인지에 따라 장점이 될수도, 단점이 될수도 있는 위치이다. 나의 경우 생각보다 학교에 그리 자주 가지 않았기에 큰 불편함은 겪지 못하였다. 가끔 친구들과 베를린 중심가쪽에서 놀고 집에 늦게 돌아와야 할 때 약간은 번거롭긴 했다.

지그문트의 경우 건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1인 1실이며, 같은 건물 사람들 혹은 같은 층 사람들끼리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한다. 여럿이 써서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대화하기에 적합한 장소들이 존재한다. 즉, 보다 '교환학생스러운' 기숙사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전의 후기에서는 지그문트가 다소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내가 직접 생활해보진 않았지만 종종 방문해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반년간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닌 듯 하다. 물론 이 역시 건물마다 분위기가 매우 다를 수 있다. 월세는 Coppi보다 약간 더 비싼 350~450유로 사이의 금액이라고 들었다. 세 기숙사 중 학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중심가와도 매우 가깝다.

Hubertusalle 역시 지그문트와 비슷하게 1인1실이고 건물 사람들과 주방을 공유한다. 다만 화장실은 방 안에 있고 혼자 사용한다. 그래서 가격이 지그문트보다도 더 비싸다고 들었다. 베를린 공대까지 버스로 30분이면 갈 수 있으나,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는 것은 꽤나 큰 단점으로 보인다. 나머지 두 기숙사는 가까운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다.

4. 출국 전 지출

앞서 언급하였듯 내가 Coppi에 살며 지불한 기숙사 비용은 매달 307유로였다. 입사 전에 보증금으로 월세의 2배인 614유로를 미리 납부하여야 했고, 이는 퇴사 후 3주쯤 되었을 때 청소상태가 완벽하다면 독일 통장으로 다시 환급된다.

TUB에는 'Semester contribution'이라는 명목으로 279유로 정도를 납부해야 했다. 여기에는 4~9월까지의 Deutschland semester ticket이 포함되어있었다. 이 티켓은 일명 도이칠란드 티켓, 58유로 티켓으로 불리는 한달 교통권이다. 원래는 한달에 58유로를 내면 독일 내의 모든 대중교통과 RE 기차(느린 기차)를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그치만 4~9월까지의 TUB에서 이를 제공해주기에 교환학생들은 보통 3월 한달권만 따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3월에 교환학생들을 위해 열리는 독일어 어학 코스를 수강했기에 295유로의 강습비를 따로 납부하였다.

독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슈페어콘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약 6000유로 정도를 미리 환전해야했다. 환전한 돈은 6개월에 걸쳐 독일 통장으로 들어온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5개월로 슈페어콘토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6000유로보다 더 적은 금액을 미리 환전하게 될 것이다.

5. 출국 짐

출국 전에 많은 교환 후기들을 찾아보며 필요한 물품들을 리스트업하였고 나는 꽤나 많은 짐들을 가져갔다. 그러나 나는 나처럼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짐을 혼자서 옮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고, 반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짧다.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면 들고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은 챙기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식재료**의 경우 거의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베를린에는 아시안마트가 많기에 거의 모든 것들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생활용품**들도 도착해서 사는 것을 추천한다. 에브리타임, 네이버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이전 교환학생들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거나, 기숙사별로 존재하는 왓츠앱

단독방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은 주말마다 열리는 플라마켓에서 값싸게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독일에도 다이소처럼 저렴하게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Woolworth, Euroshop 등이 존재하고, 또 대형마트에 가면 생활용품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 도착해서 최소한의 물품들을 마련하여 반년만 다소 불편하게 생활하기를 추천한다. dm, Rossmann과 같은 드럭스토어에서는 어쩌면 한국보다 저렴하게 화장품, 세면용품, 약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옷 역시 너무 많은 옷을 챙기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나 적당히는 챙겨야한다고 본다. 옷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저렴하게 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새 옷을 구매하기에는 짐이 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다. 물론 SPA 브랜드에서 구매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그러나 본인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옷을 사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귀국시에 짐이 늘어 번거로워지기도 한다. 의류는 본인의 성향을 잘 판단하여 '적당히' 챙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름학기 교환학생으로 생활하였지만 베를린에는 더운날이 그리 많지 않았다. 독일의 북쪽에 위치한 베를린의 여름 날씨는 한국인에게는 제법 선선하고, 종종 쌀쌀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다. 얼마 챙겨가지 않은 겨울옷을 꽤나 늦게까지 입었고 여름옷을 입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오히려 여행을 하다보면 다른 지역은 베를린에 비해 더워서 여름옷을 많이 입게 되었다. 본인이 머무는 기간과 지역을 고려하여 미리 날씨를 잘 알아보고 옷을 챙기기를 바란다.

상비약의 경우 충분히 챙기기를 추천한다. 나는 교환 생활 초반에는 챙겨온 이 많은 약들을 다 쓸까 싶은 생각을 했으나, 반년간 감기도 한두번 걸리고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했으며 손목을 다치는 일도 있었다.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에 부족하지 않게 상비약을 챙겨오길 바란다. 감기약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먹어야 할 감기약을 계산하면 은근 적은 양이 아니게 된다. 독일은 감기차가 유명하기에 그런 것을 독일에 와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은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는 못했다. ISIS라는 etl 같은 시스템에서 강좌를 검색하여 수업을 추가해두면 내가 해당 ISIS 내의 학생 목록에 들어가게 되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안내 및 수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수강 신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수업은 출석체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지 과목마다의 과제와 시험에 끝까지 참여하여 점수를 일정 이상 받는다면 수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개강 후 한 달이 지나도 시간표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치만 또 몇 수업들은 개강 몇 주 전부터 선착순으로 수강생들을 제한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수업들이 ISIS에 개설되기 시작할 즈음부터 본인이 관심있는 수업들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보길 바란다. 보통 학기에 한 번 있는 시험 같은 경우, TUB 재학생들은 MOSIS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하고 교환학생들은 MOSIS 혹은 별도의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한다. 신청하는 기한이 수업마다 다르게 정해져있으니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한다. 수강 신청, 수업 방식, 시험 신청, 시험 방식 등 모든 것들은 수업별로 다르니 ISIS의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하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수님 혹은 조교님께 직접 질문하길 바란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나의 전공인 재료공학부에서는 영어강의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전공의 수업들을 듣게 되었다. 총 3과목의 타과 석사 전공 수업을 수강했고, 그 중 추천하고자 하는 강의는 **Energy System**이다. 에너지공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지 않았음에도 따라가기에 벅찬 수준은 아니었다.

공대생이라면 수업을 수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본다.

3. 독일어 어학 코스

개강 전 한 달간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독일어 어학 코스**가 있다. 따로 강습료를 납부해야하고, 레벨테스트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독일어는 매우 초급 수준이었고, 그러한 경우에는 따로 레벨테스트를 볼 필요 없다. 수업의 방식은 배정되는 반마다 차이가 조금 있다. 우리 반에는 약 25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교재 중심으로 딱딱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보다 자유롭게 회화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배정되는 선생님의 따라 차이가 꽤나 있을 것으로 본다. 어학 코스를 통해 독일어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어 학기중에도 독일어 수업을 따로 듣는 경우도 있었다. (어학 코스는 학기중에 이루어지는 수업도 따로 수업료를 지불해야하나, 학기중 수업의 경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한 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세 시간 동안의 수업이 매일 있다. 나같은 경우는 한 달만에 독일어 실력이 확 늘지는 않았지만, 이때 배운 아주 기초적인 독일어가 나의 독일 생활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은 확실하다. 또 한 달간 매일매일 출석하다보니 같은 반의 외국인, 한국인 친구들과 매우 친해질 수 있었다.

V. 생활

1. 교통

앞서 언급하였듯 독일에는 **도이칠란드 티켓(58유로 티켓)**이 있기에 일상 생활에서는 58유로 이외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여행을 다닐 때에도 가까운 지역으로 지역기차(RE)를 이용하여 독일 내를 여행한다면 교통비는 들지 않는다. 베를린에서 지역기차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곳들은 함부르크, 슈베린, 드레스덴 등이 있다.

먼 거리에 위치해있는 독일 도시들을 갈 때에는 따로 ICE 등의 기차 혹은 Flixtrain/Flixbus를 예매하곤 한다. 이렇게 따로 예매해야 하는 것들은 보통 직전으로 갈수록 매우 비싸지니, 여행지를 정했다면 **교통을 가장 먼저 예약**하길 추천한다. (유럽 어디든 보통 직전으로 갈수록 기차, 버스 등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

여행에서 사용하는 교통 관련 어플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독일 내에서는 DB가 가장 편리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DB 어플**에는 도이칠란드 티켓만으로 갈 수 있는 경로들을 보여주는 설정도 있어 유용하다. 시간이 많지만 돈은 없는 교환학생이라면, 한번쯤은 먼 거리를 도이칠란드 티켓만으로 여러 번 환승하며 하루종일 기차여행을 해보는 것도 다소 피로하지만 학생 때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기에 추천한다.

DB에는 ICE를 예약할 때에 할인받을 수 있는 **반카드**가 있다. 본인이 기차 여행을 많이 다닐 예정이라면 반50, 반25카드 등의 구매를 고려해보길 추천한다. 각각 50퍼센트, 25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카드이다. 반카드도 종류가 꽤나 많은 편이니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한다. **ESN 카드**는 유럽 교환학생 단체인 ESN에서 교환학생들에게 발급해주는 카드이다. 교환학생 OT 때 오시는 ESN 담당자님들에게 현금 20유로를 드리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더 먼저 구매하고 싶다면 ESN 홈페이지의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해서 직접 사러 가야한다. 여러 혜택이 있으나 핵심적인 혜택은 라이언어 10% 할인 및 수하물 무료 추가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사용하려면 4주 전에 예약해야하고, 성수기 기간에는 사용 불가하며 4번의 횟수제한이 있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니 미리 본인의 여행 일정을 고려한 후 신중하게 구매하기 바란다. 만약 본인이 짐이 거의 없어서 저가항공에 무료로 가지고 탈 수 있는 배낭 하나로 항상 여행이 가능하다면 구매하지 않기를 추천한다.

이외에도 **ISIC 국제학생증**, UNIDAYS 등 학생 혜택을 제공하는 여러 플랫폼들이 있으니 홈페이지

에서 제공 혜택을 확인하여 야무지게 사용하면 좋다. Flixbus/Flixtrain 같은 경우 대부분의 플랫폼들에서 할인 코드를 제공한다. ISIC 국제학생증은 한국에서 꼭 발급해오기 바란다. 종종 학생 요금을 제공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국제학생증만 허용하는 관광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2. 통신

나는 **Alditalk**의 Kombi-Paket S 요금제를 사용했다. 4주에 8.99유로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스위스를 제외한 전 유럽에서 15기가의 데이터와 무제한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개통 방법 역시 간단한데 근처 Aldi 마트에 가서 스타터 유심을 사서 안내대로 설치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원 인증을 하면 된다. 앱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요금제 변경도 앱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앱이 독일어로 되어있지만 이는 다른 통신사의 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Alditalk 고객센터와도 연락해야할 일이 있었는데 통화로 연락할 수 있으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으므로 만약 연락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3. 은행 계좌

나는 **N26** 계좌를 주계좌로 사용했다. 직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신원 확인을 받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영상통화로 신원확인을 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한 것은 아니기에, 인터넷이 잘 터지는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해야한다. 실물카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카드 없이도 근처 dm이나 마트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카드 없이는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제할 때에는 실물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페이(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단점 하나는 해킹 피해 이슈가 있다는 것이다. 큰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기에 해킹 피해 사례를 알게된 후에도 그냥 사용했으나, 이것이 걱정된다면 레볼루트, 엑스파트리오 계좌 등 타 은행 계좌 개설도 알아보기 바란다. 또 중간에 모종의 이유로 고객센터와 연락해야할 일이 있었는데 전화는 아예 불가능했고 채팅으로만 연락해야 했으며, 직원들이 책임감있게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주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은행 고객센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4. 여가 생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국에서에 비해 여가시간이 매우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본인의 성향에 맞추어 잘 계획하기 바란다. 남은 시간에 여행을 다닐 것인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할 것인지, 혹은 온전히 휴식을 취할 것인지 말이다. 교환교의 동아리 활동을 찾아서 하는 친구도 있었고, 학교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는 **TU Sports**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친구도 있었다. 또는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본인이 추구하는 생활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알찬 시간들을 보냈으면 한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독일 **아마존**에서는 학생들에게 **프라임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환교 메일로 가입하면 무료로 프라임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독일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자전거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공유 자전거 플랫폼도 많이 있는데, **Nextbike**라는 플랫폼에서는 베를린 학생들에게 한 달 5유로 요금제를 제공한다. 한 달에 5유로만 내면 30분간 무제한으로 공유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 역시 교환교 메일 등으로 인증하면 된다.

Unirents라는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레인지, 밥솥, 청소기, 자전거 등의 물품들을 6개월간만 대여하

는 것이 가능하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귀국할 때에 짐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크다. 내가 머물던 Coppi 기숙사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었어서 6개월간 대여하였고 너무 만족하며 사용했다. 배송 받는 절차와 대여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홈페이지에서 희망 배송 시간대, 반납 시간대를 선택한 후 홈페이지에 있는 왓츠앱을 통해 상세 시간을 협의하면 된다. 집앞까지 가져다 주고 다시 집앞으로 가지러 온다.

VI. 귀국

1. 압멜등

독일에 들어올 때에 안멜등 했던 것처럼 나갈 때에도 압멜등을 해야한다. 출국하기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니 종강 후의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한다. 압멜등 역시 테어민을 미리 해야한다.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서류와 여권 사본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2. 여러 취소 절차들

통신, 보험 등을 취소해야 다음달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카드, 도이칠란드 티켓 등도 자동 구독 연장을 막으려면 미리 기한을 맞춰 취소해야한다. 특히 도이칠란드 티켓의 경우 취소 기한이 매우 일러서 개강 전에 한달권을 구매했다가 취소를 까먹고 다음달 요금까지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강 전에 한달권을 구매할 때, 바로 구독 취소를 해두기를 추천한다. 이 외에도 본인이 구독한 무언가가 있다면 잊지 않고 모든 것을 취소하고 귀국해야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VII. 소감

반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100% 본인에게 달려 있다. 나의 반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도 많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과 후회들이 앞으로의 나의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줄 것이다. 반년간 혼자 해외에서 살아남다보면 반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매우 압축적으로 일어난다. 교환학생들이 짧은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함이 몸소 이해되었다.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생겨날 위기를 보다 침착하게 해결해나갈 용기를 많이 얻어간다. 또 유럽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살아가며,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유럽의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은, 한국에서만 있었다면 쉽사리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외국인 친구들, 한인 교환학생 친구들, 처음 만난 사람들, 때로는 홀로 유럽의 많은 곳들을 여행했다. 세상이 너무나 넓었다. 친구들과 장관을 찾아 떠나고, 자유로이 수영하고,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고, 헉헉거리며 하이킹을 하고, 강 위에서 수영하며 바비큐 파티를 하고, 같이 일몰과 일출을 보고, 기차를 놓치고, 함께 밥을 해먹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싸우고, 마지막엔 미래의 재회를 기약했다. 잊지 못할 기억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기억들도 흐려지고 있다. 그치만 반년 동안 가득했던 이 젊음의 열정은 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불타며 앞으로의 나의 삶의 연료가 될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년 8월 30일
지원자	장 주 영 (인)